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90원 상승한 1,458.20원에 마감

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5.90원 상승한 1,458.2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.80원 상승한 1,459.1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 위험회피 분위기에 달러 지수 하락 등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다. 오후장에서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로 1,450원 후반에서 횡보하며 1458.2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1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89.44원이다.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59.10	1460.50	1451.50	1458.20
엔화	985.86	995.03	980.61	986.67	-
유로화	1573.33	1596.30	1572.32	1591.96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61	-6.58	-14.15
결제환율(수입)	-1	-5.67	-12.12	-24.16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 약세 전환에...1,450원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6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8.20) 대비 6.10원 하락한 1449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유로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을 추종하며 제한적인 하락이 예상된다.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를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. 이에 캐나다가 미국 수출용 전기요금 할증을 유예하자 트럼프도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했다. 한편,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30일 휴전 방안을 합의하며 러-우 종전 기대가 강화되었다. 또한, 독일 부채 제한 완화에 반대했던 녹색당이 국방비 확대와 인프라 특별기금에 대한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. 이에 재정지출 완화에 따른 유로존 성장 기대가 재조명되며 유로화 및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을 이어갔다. 달러지수는 0.50% 하락한 103.40pt에 마감하며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유로화 강세가 촉발한 글로벌 강달러 완화 분위기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수요 및 CPI 경계감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47.20 ~ 1455.8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5372.57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.1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1433.48, -478.23p(-1.1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4.86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4829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